신나는 책도락

쓰기

영감님은 왜 그랬을까요?

다음 그림을 보며 영감님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아요.

- 사람들은 영감님 아들의 이름이 너무 길다고 수군거렸어요. 하지만 영감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. 영감님은 왜 그렇게 이 이름을 마음에 들어 할까요?

- 영감님은 누군가 아들의 이름을 줄여서 부르면 크게 화를 내면서 제대로 부르라고 단단히 일렀어요. 왜 그랬을까요?

- 그러던 영감님이 아들의 친구들에게 이름을 줄여서 불러도 된다고 하네요. 영감님의 마음이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?

학부모 가이드 Tip

일견 엉뚱하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영감님이지만 잘 살펴보면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. 그림과 이야기의 흐름을 잘 살펴본 후 영감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아요.